



자전거의 세대교체, 공공자전거에서 공유자전거로

자전거도 사물인터넷(IoT) 시대
공유자전거 타조(TAZO)

인공지능과의 대화가 낯설지 않은 요즘,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자전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공유자전거 타조(TAZO)는 무선통신, 위치정보시스템(GPS),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이 공유경제라는 트렌드를 만나 친환경 이동수단에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다.

글. 사진. 유수정 주무관(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



타조 사용방법

알고 나면 쉬운 자전거, 타조 이용 따라 하기

공유자전거 타조는 대여·반납 거치대가 없다. 대신 타조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자 주변에 주차된 자전거를 검색하면 된다. 본인인증과 결제카드 등록을 마치면 타조 이용준비는 끝난다. 자전거를 타기 전 자전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해 자동잠금장치를 해제하는 것도 잊지 말자. 기본요금은 20분 이용 시 500원이고 이후 10분 당 200원씩 추가금이 붙는다. 한 달에 1만 원이면 타조를 기본 20분, 횟수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용 후엔 고양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어디든 자유롭게 주차하고 반납할 수 있다. 하지만 거리 곳곳에 무질서하게 자전거를 주차해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개인 공간에 자전거를 두고 사유화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음 이용자를 위해 대로변이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반납하는 것이 좋겠다. 결제는 반납과 동시에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카드로 이루어진다.

타조, 나도 한번 타볼까?

시범운영기간에는 타조 이용이 무료다. 4월 11일까지 4주간 타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임시 이용권이 타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된다. 이용자의 독점사용을 방지하고자 추가요금(200원/10분)은 과금한다.

현재 공유자전거 타조는 덕양구 화정역, 일산동구 마두역, 일산서구 주엽역 등 5곳을 중심으로 100대가 배치되었다. 신규 택지지구인 덕양구 향동과 일산 식사지구 등에도 순차적으로 추가 투입된다. 정식운영을 시작하는 5월부터는 총 1,000대의 자전거가 운영을 시작한다고 하니, 곧 고양시 전역에서 공유자전거 타조를 만날 날이 머지않았다.

TIP

공유자전거 타조 이용정보

구분	이용료	이용시간	추가요금
1회 이용권	500원	20분 / 1회	200원 / 10분
30일 이용권	10,000원	20분 / 횟수 무제한	

운영방식 거치대 없는 무인대여 공유자전거 서비스
이용문의 타조 앱 → 고객센터 → 카카오톡 문의하기
 ※ 고객센터 1577-5942(평일 09:00~18:00)
반납방법 이용 완료되면 락커 잠금 후 반납완료(자동결제)
 ※ 반납가능구역: 고양시 관내 대로변 등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
시범운영 3월 15일~4월 11일(4주)
 무료이용 가능(기본 20분, 횟수 무제한)
 ※ 정식운영 시작 후 신규가입 회원 또는 가입지속 회원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쿠폰' 발급예정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꼭 알아들 고양시 제도

1.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이용보험'
보장기간 2021. 5. 31.까지(매해 갱신), 청구시효 3년
가입절차 별도 가입절차 없음
보장범위 자전거 운행 중 사고(탑승자 포함), 자전거 탑승 중 사고(미운행),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담보내용 고양시청 홈페이지 새소식→'고양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검색

2. 2021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기간 2021. 3. 17.~11. 20.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센터위치 동 행정복지센터·공원 등 일정표 참고
일정표 고양시청 홈페이지 새소식→'2021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검색